

#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늘리고 R&D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전남대병원서 간담회...진료·연구·인력 양성 중심기관 육성 시설·장비 첨단화...사립대병원과 중증진료 협업 등 협력 모델 모색도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증질환 진료, 연구, 인력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교수 정원의 확대와 혁신적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진료·연구 선순환 여건 조성, 시설과 장비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오전 전남대병원 6동 8층 백년홀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유보영 질병정책과장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광주시 문영훈 행정부시장, 전남대병원 안영근 병원장, 박창환 진료부원장, 신준호 공공부원장, 윤경철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자, 정영도 전남대의과대학장, 김경중 조선대병원장, 김중선 첨단우리병원장, 류호성 현대병원장, 김명기 광주주민자치연합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사립대병원도 국립대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중증진료를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진료·연구·교육 분야별로 국립대와 사립대병원 간 협력 모델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우수 중소병원을 키우고,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적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심뇌혈관, 알코올, 분만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들이 지역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기준 또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들 간 협력체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네

트워크의 구축·운영을 지원,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의과·회송 등 서로 협력 진료를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정영도 전남대의과 학장, 김경중 조선대병원장 등은 한목소리로 지역 전공의 부족과 수련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으며, 김중선 첨단우리병원장은 지역 명인들이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기본 진료료 인상 등을 요청했다.

또 전남대병원 신준호 공공부원장은 "지방 병원들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각종 의료기관 평가 기준이 서울 및 수도권 병원에 맞출 경우 지방병원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며 "지역에 맞는 평가체

계의 기준이 완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수도권으로 자원이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해지고 필수요료를 담당할 의사마저 지역과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의료진의 희생을 막고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모래 위처럼 위태로운 뿐"이라며 "이날 간담회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인력의 확충과 함께 지역 내 병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상상하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오전 광산구 평동산단 자동차 전문 생산업체인 코비코(주)에서 열린 '나이지리아 경찰청 장갑차 수출 협약식'에 참석해 솔레이만 이브라힘 이만 나이지리아 경찰부장관, 조광철 코비코(주) 대표 등과 장갑차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産 장갑차 100대 아프리카 수출길

### 市·나이지리아 방문단, 평동산단서 500억원 규모 협약

광주지역 자동차 전문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장갑차가 아프리카 수출길에 오른다.

자동차 전문 생산업체 코비코(주)는 18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코비코 대화실에서 나이지리아 경찰청과 장갑차 100대(500억원 상당) 규모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조광철 코비코 대표, 솔레이만 이브라힘 이만 나이지리아 경찰 부 장관, 압두야리 수야우 라피라 나이지리아 경찰청 정보부 수장, 느온에 퍼디난드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하는 차륜형 장갑차는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 개발(R&D)을 통해 탄생한 차량이다. 코비코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도 순

차적으로 장갑차를 수출할 계획이다. 코비코는 광주에 본사를 포함해 공장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300여명, 매출액은 1850억원에 달한다.

기아·현대차 1차 협력사로 특수목적 차량, 군수 차량 부품, 차체조립 등 분야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군수 기업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연 72만대 생산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 제2의 자동차 도시"라면서 "광주시가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코비코가 노사 상생과 기업 경쟁력으로 나이지리아와 함께 좋은 파트너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파 속 협약식에 참석한 나이지리아 대사 등 광주방문단이 "어쩌면 이렇게 추울 수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2025 세계양궁대회 성공 개최

### 광주시, 이달까지 슬로건 공모

광주시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양궁 메카 광주의 상징성, 대회 성공 개최 의지를 담은 내용으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QR코드, 인터넷 사이트(https://forms.gle/aJdE9xaNcNmJMURx9)를 통해 15자 안팎의 슬로건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완성도, 상징성, 독창성, 홍보 활용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 등지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서울, 2009년 울산에 이어 세 번째 개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190억 지급

### 연말까지 1만4000 농가 대상 평균 78만원

전남도가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4억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6억원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직불금 총 19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을 위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1999년부터 시행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 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1만4000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9000ha로 국비 114억원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 210억원의 54%에 해당되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이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며, 인증단계별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과수는 70만원에서 140

만원까지,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65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비사업으로 유기농은 5년차까지, 무농약은 3년차까지 100% 지원하고,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 무농약은 4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2015년부터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자체사업을 추진해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차부터 50%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의 자체 추가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유기·무농약 지속 인증농지로 지급 면적은 약 1만4000ha다. 1만2000여농가에게 76억원을 지급한다.

무농약 벼의 경우 4년차 1회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연차 제한 없이 유기전환필지에 해당하면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우즈벡 사마르칸트 경제·문화 교류

### 광주서 협력 방안 논의...내년 3~4월 중 '교류의 날' 지정 검토

광주시가 중앙아시아 첫 후호도시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경제·문화 교류를 본격화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오이베크 할라예브 부지사 등 사마르칸트 주 대표단을 접견하고,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호남 대표 친환경 농산물 산지이자 광주글로벌모터스(GGM)·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 2개 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 미래 차 중심 도시"라면서 "광주 정신으로 상징되는 포용력을 토대로 광주와 사마르칸트가 후호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이베크 할라예브 사마르칸트 부지사도 "무역, 산업, 투자 등 다양한 일을 함께하려면 양 도시

간 기업인 포럼, 관련 부서 운영 등이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의 교류 자리가 향후 투자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도시는 3~4월 중 '문화교류의 날'을 지정해 각 도시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알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 등도 협의했다.

강 시장은 "기업인 포럼 운영과 문화교류의 날 지정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농업 등 사마르칸트 주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 산업을 제시해준다면 광주시 대표단을 광주 사마르칸트 주 방문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사마르칸트를 방문하고 10월에는 후호 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적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복권위원회 | 사랑의일대